

이하선의 양성 혼합종에서 생긴 암육종

- 1예 보고 -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이비인후과* 및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고재수 · 하창원 · 명나혜 · 조경자
오 경 균* · 김 미 경** · 장 자 준

Carcinosarcoma Arising from Mixed Tumor of the Parotid Gland

- A case report -

Jae Soo Koh, M.D., Chang Won Ha, M.D., Na Hye Myoung, M.D., Kyung Ja Cho, M.D.
Kyung Kyun Oh, M.D.*, Mikyung Kim, M.D.** and Ja-June Jang, M.D.

Department of Anatomical Pathology and Otorhinolaryngology*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and
Department of Pathology,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 case of true malignant mixed tumor of the parotid gland is reported. The tumor, occurring in a 55-year-old man, started to grow rapidly after a long history of parotid mass. Total parotidectomy was carried out and the resected tumor measured 5×4×3 cm with a cut surface showing grayish-white solid and myxoid appearance. Microscopically, the tumor had both carcinomatous and sarcomatous elements, the former consisting of undifferentiated carcinoma with focal areas of ductal differentiation and the latter consisting of pleomorphic sarcoma with chondrosarcomatous differentiation. A remnant of benign pleomorphic adenoma could also be identified. Immunohistochemical study demonstrated focal cytokeratin reactivity in the carcinoma cells and vimentin in sarcomatous elements. It is assumed from these clinical and histological findings that the tumor had transformed from a pre-existing benign pleomorphic adenoma.

(Korean J Pathol 1992; 26: 530~532)

Key Words: Malignant mixed tumor, Carcinosarcoma, Salivary gland

타액선의 양성 혼합종은 임상적, 병리조직학적으로 세가지 다른 형태의 종양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가 가장 흔한 경우로서 이는 기존하는 양성 혼합종에서 상피 세포 성분만이 악성인 것이고, 상피 세포 및 간엽세포 성분 모두가 악성인 암육종은 매우 드물다. 그리고 병리조직학적으로는 양성 혼합종과 동일하면서 원격 전이의 임상 양상을 보인 예도 보고된 바 있다. 저자들은 최근 우측 이하선의 양성 혼합종에 병발한 암육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55세 남자 환자가 10년 전부터 있어 온 우측 이하

선 부위의 종괴가 약 10개월 전부터 갑자기 크기가 증가하여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우측 이하선 부위에서 목에까지 걸쳐 단단하게 만져지는 고정된 종괴가 있었다. 두경부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상 경계가 안 좋은 이질성의 음영을 보이는 종괴가 우측 이하선을 차지하고 있었고 피부로의 침윤도 보여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었으며, 같은 시기에 시행한 여러 검사에서 원격 전이의 증거는 없었다. 세침 흡인 세포학적 소견상 핵-세포질 비율이 높고 과염색상을 보이는 핵을 가지는 세포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양성으로 판단되는 간엽 세포가 관찰되어 이하선의 양성 혼합종이 의심되었다. 이하선에 생긴 양성 종양 진단하에 이하선 전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 소견상 종양의 피막형성은 비교적 잘 되어 있었지만 주위 조직과의 유착이 심했다. 환자는 수술 후 1달 이내에 같은 부위에 재발의

접 수: 1992년 3월 21일, 게재승인: 1992년 5월 8일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우편번호 139-240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고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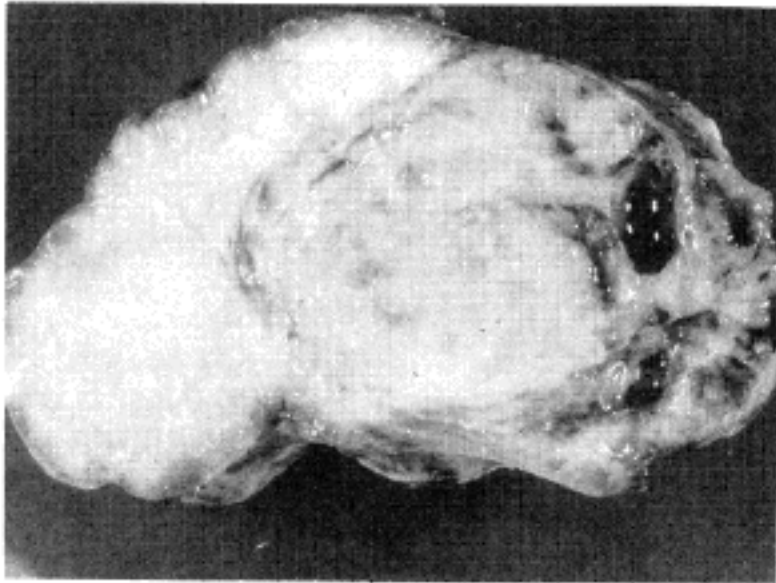


Fig. 1. A 5×4×3 cm-sized relatively well encapsulated tumor of the parotid gland showing grayish-white firm, and myxoid fe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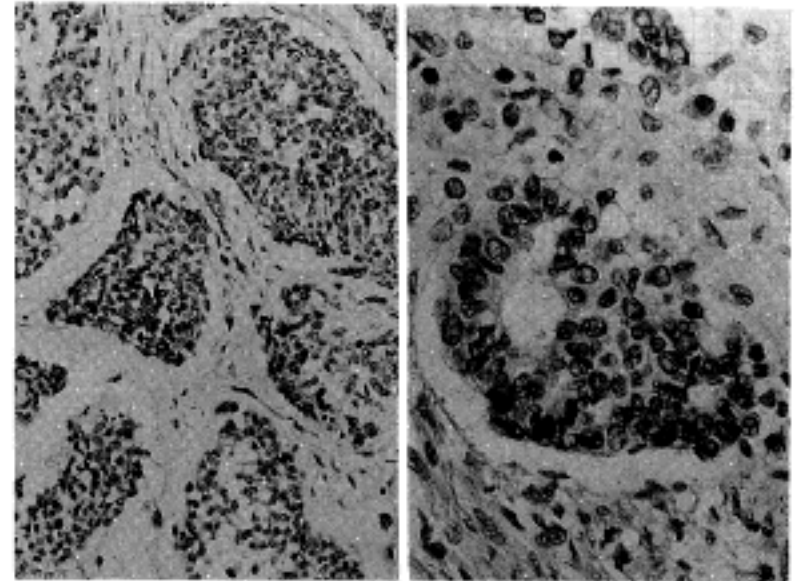


Fig. 2. An area of carcinoma, predominantly undifferentiated(left) showing a focal area of glandular differentiation(right).

소견을 보였고, 중성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가 고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육안소견: 적출된 종괴는 크기가 5×4×3 cm이었고, 표면에 피막 형성이 잘 되어 있었지만 다소 불규칙하여서 유착이 심했음을 암시했고 다양한 크기의 분엽상을 보였다. 절단면은 비교적 균질하게 회백색을 띠었고, 부분적으로는 점액성의 소견도 보였으며 국소적으로는 출혈을 동반한 괴사의 소견도 보였다(Fig. 1).

광학현미경소견: 종양은 암종세포와 육종세포가 혼재하는 암육종의 형태를 보였다. 암종을 구성하는 세포의 대부분은 특정한 형태로의 분화를 보이지 않는, 거친 염색질, 불규칙한 핵막, 미미한 세포질을 가진 미분화된 등골거나 각진 세포로서, 충실성 집락을 불규칙하게 형성하였으며 국소적으로는 관 모양도 만들어서 선암종으로 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Fig. 2). 육종성분도 대부분 특정한 형태로의 분화를 보이지 않으며 기괴한 형태와 과염색상 및 빈번한 세포분열 등을 갖는 방추형 또는 난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연골육종으로의 분화를 보이기도 했다(Fig. 3). 종양의 주변부에는 양성 혼합종의 소견이 남아 있었으며 양성 혼합종과 악성 혼합종의 경계부위는 이행성 변화를 보여서 기왕의 양성 종양이 악성으로 변환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Cytokeratin, vimentin, 그리고 S-100단백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소견상 대부분 음성이었고, 암종이라고 여겼던 부위에서는 cytokeratin이, 육종 부위에서는 vimentin이 국소적으로 약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타액선에 생기는 암육종은 1951년 Kirklin등이 4예를 보고한 이래 지금까지 20여예가 보고된 드문 종양으로서¹⁻⁶⁾, 국내에서는 본 예와 같은 시기에 초록으로 보고된 1예가 있을 뿐이다. 타액선 종양의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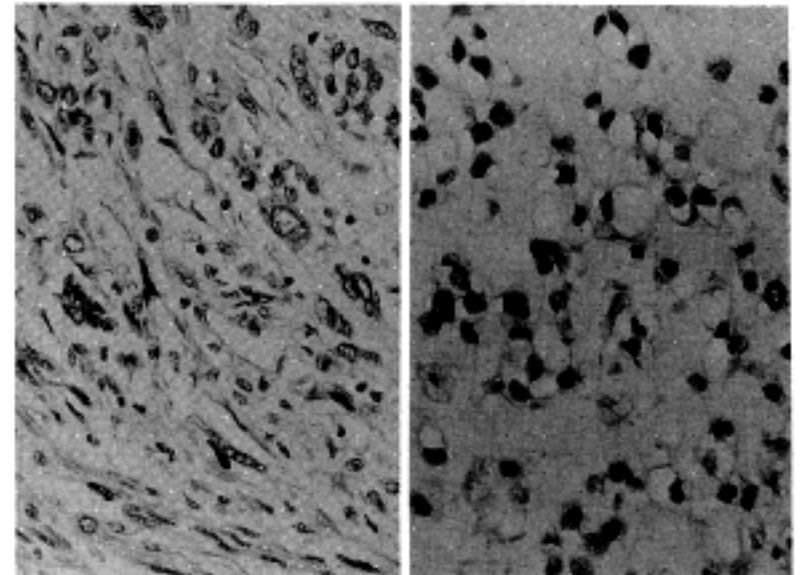


Fig. 3. An area of sarcoma, predominantly comprising bizarre pleomorphic sarcoma(left) showing a few areas of chondrosarcomatous differentiation(right).

을 양성 혼합종이 차지하지만 그 악성 형인 악성 혼합종은 매우 드물어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는 타액선 악성 종양의 0.9~0.3%, 암육종은 0.2%를 차지하며, 양성 혼합종이 원적 전이를 한 경우도 더욱 드물게 보고되어 있다^{2,6,7)}. 이 암육종은 조직학적 소견상 암종과 육종이 혼재한 양상을 보이며 암종은 선암종, 편평 세포 암종, 미분화 암종 등이 단독으로 혹은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육종성분은 연골육종, 섬유육종, 골육종,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 혹은 특정한 형태로의 분화를 보이지 않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 다능성으로 악성 변환함을 보인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는 암종에서는 cytokeratin이, 육종에

서는 vimentin이, 그리고 S-100단백은 연골육종 영역에서 양성으로 염색된다³⁾. 발생빈도가 낮아서 본 종양에 대한 특성을 통계학적 의의를 가지고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50~60대에 호발하고,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고, 5년 이상 생존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발생 부위는 주로 주 타액선으로 그 중에서도 이하선이 가장 많으며, 조직학적으로는 선암종과 연골육종의 형태가 가장 흔하다⁴⁾. 본 종양의 기원에 대하여는 정립된 바가 없으나, 조직학적 소견상 양성 혼합종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이 종양에서 자주 보이는 선암종과 연골육종의 소견은 양성 혼합종에서 보이는 소견의 악성 대조물에 부합되는 소견이며, 임상적으로 잦은 재발을 보였거나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양성 혼합종에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기존하는 양성 혼합종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4-6)}. 그러나 위와 같은 병력도 없고 많은 절편상에서도 양성 혼합종의 소견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새로이(de novo) 생긴 종양이라는 다른 견해도 있다⁵⁾. 본 예는 종양의 주변부에서 양성 혼합종의 소견을 볼 수 있었고, 양성 혼합종과 악성 혼합종의 경계 부위는 양-악성의 판단이 모호한 소견을 보여, 치료받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양성 혼합종이 악성으로 형질변환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양성 혼합종의 악성 변환을 보여 줌으로써, 기능상 혹은 미용상으로 치료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양성으로 여겨지는 종양일지라도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안전한 처방임을 실감케 한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근치술을 하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고, 예후는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가 암종

의 형태에 따라 다른 예후를 보이는 것과 달리²⁾, 암육종은 분화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예후가 나빠서 5년 이상 생존한 예는 매우 드물다²⁻⁵⁾.

참 고 문 헌

- 1) Kirklin JW, McDonald JR, Harrington SW, New GB: *Parotid tumors. Histology, clinical behavior, and end results. Surg Gynecol Obstet* 1951; 92: 721-33.
- 2) Tortoledo ME, Luna MA, Batsakis JG: *Carcinomas ex pleomorphic adenoma and malignant mixed tumors. Arch Otolaryngol* 1984; 110: 172-6.
- 3) Stephen J, Batsakis JG, Luna MA, von der Heyden U, Byers RM: *True malignant mixed tumors (carcinosarcoma) of salivary glands.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1986; 61: 597-602.
- 4) Garner SL, Maves MD, Robinson RA, Barnes CH: *Salivary gland carcinosarcoma: true malignant mixed tumor. Ann Otol Rhinol Laryngol* 1989; 98: 611-4.
- 5) Chen KTK, Weinberg RA, Moseley D: *Carcinosarcoma of the salivary gland. Am J Otolaryngol* 1984; 5: 415-7.
- 6) Yamashita T, Kameda N, Katayama K, Hiruta N, Nakada M, Takeda Y: *True malignant mixed tumor of the submandibular gland. Acta Pathol Jpn* 1990; 40: 137-42.
- 7) Batsakis JG: *Pathology consultation. Malignant mixed tumor. Ann Otol Rhinol Laryngol* 1982; 91: 342-3.